

교육목표

- 1. 이웃을 사랑하는 예의바른 학생
- 2.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는 학생
- 3. 슬기롭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창의적인 학생
- 4. 세계와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학생



- 펴낸곳 : 시흥신일초등학교
- 펴낸이 : 이흥재 교장선생님
- 도운이 : 김화숙 교감선생님
- 만든이 : 류정민 선생님

◆ 홈페이지 : <http://sinil-sh.es.kr>

◆ 주소 : 경기 시흥시 신천로 7번길 12

☎ 070-7097-2804

2학기 공개수업 사진

꿈을 키우는 사람이 되자

이흥재 교장선생님

사랑하는 시흥신일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미래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꿈만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향해 소중한 한 발 한 발을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봄에 땅 흘려 씨앗을 뿌린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 둘 수 있고, 뜨거운 여름을 보낼수록 무더위를 참고 견뎌 낸 가을 열매는 더 달콤하고 튼튼한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은 성공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인생을 폐허로 만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인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어릴 때부터 영어에 흥미를 갖고 외교관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노력하였기에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인생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슴에 크고 멋진 꿈을 담아 봅시다!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을 빛낸 위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어보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합니다. 꼭 위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혹은 부모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쭙어 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꿈을 키워 가는 좋은 공부라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나아질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시흥신일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성공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는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땀과 노력으로 성공의 문을 향하여 전진하고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 세상 - 1학년 글&그림

단

1-3 임재성

신나는 요리시간

1-1 신예원

오늘은 신나는 요리하는 날!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까?
팥빙수를 만들까?
내가 좋아하는 치즈롤을 만들지.

오늘은 신나는 요리하는 날!
초코 아이스크림을 만들까?
과일 주스를 만들까?
만들기 쉬운 유부초밥을 만들지.

오늘은 신나는 요리하는 날!
스파게티를 만들까?
우동을 만들까?
잔치날 먹는 잔치국수를 만들지.

학교 가는 길

1-2 이예린

어깨에 분홍 가방 매달고
신발주머니 시계처럼 흔들며
학교 가는 길

쌩쌩 무섭게 지나가는 자동차
녹색아주머니 노란 깃발 내리면
자동차가 웃으며 우리를 기다려주고
친구와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길

신나게 즐겁게
학교 가는 길
나는 나는 언제나 행복하지요

눈 눈 눈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 눈

내가 지나가면
발자국이
쫄르르 따라오네.

데굴데굴 굴러
눈으로
눈사람을 만드네.

주먹만하게 뭉쳐
신나게
눈싸움을 하네.

눈 눈 눈
하늘에서
행복이 내려오네.

학교 가는 길

1-3 김민서

학교 가는 길
짐도 많고
비도 온다네.

학교 종이
땡 땡 땡!

빨리 달리다가
길이 미끄러워서
벌러덩

언니
오빠
친구들도
벌러덩

너무 웃겨
깔깔깔

우리 가족

1-4 김윤서

열심히 일하고 술마시는 미운 아빠
열심히 집안일 하고 많이 먹어 살찐 엄마
열심히 공부하고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
열심히 웃고 언니랑 싸우는 동생

때론 미운 행동을 해서 밉기도 하지만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바다가 좋아

1-1 김준성



무지개 물고기

1-2 손영균



생쥐가족

1-4 양현채



즐거운 겨울

1-5 변주은



김장하는 날

1-5 원재민



꿈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 세상 - 2학년 글&그림

열두띠 이야기를 읽고

2-1 송성하

옛날 옥황상제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하나고 말했어요. 그래서 12신을 뽑아서 내려보냈어요. 쥐신이 첫째로 성실을 가르치려고 내려가고 소신이 둘째로 튼튼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내려가고 호랑이신이 셋째로 용기를 가르치러 내려가고 토끼신이 넷째로 지혜를 가르치러 내려가고 용신이 다섯째로 물을 가르치러 내려가고 뱀신이 여섯째로 끈기를 가르치러 내려가고 말신이 일곱째로 꿈을 가르치러 내려가고 양신이 여덟째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르치러 내려가고 원숭이신이 아홉째로 재주를 가르치러 내려가고 닭신이 열번째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러 내려가고 개신이 열한번째로 믿음을 전하러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돼지신이 열두번째로 행복을 내려가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눈

2-2 김은빈

밤에 눈이 내렸다.
내가 잠든 사이에
하얀 눈이 운동장에 소복이 쌓였다.

춡다고 안 나가던 우리 반 친구들
와르르 몰려나갔다.

눈싸움도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은 아이들의 놀이터다.

받아쓰기 시험

9월 2일 수요일
햇님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

2-3 김건우

오늘은 2학기 되어 처음으로 1급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날이다. 1교시에 받아쓰기 시험이 있어서 아침 공부 시간에 받아쓰기 급수표를 2번 읽었다. 선생님이 1번을 부를 때는 떨리는 것이 없었고 5번, 6번을 부를 때는 떨리는 것이 없었고 바르게 쓸 수 있었다. 오늘 본 1급은 백점을 받았다. 남아 있는 2급에서 12급까지 모두 100점을 맞았으면 정말 좋겠다. 남은 11번의 받아쓰기를 100점 받기 위해 하루에 1번씩 바른 글씨로 써야겠다.

장난감

10월 3일 토요일
햇님이 반짝 기분 좋은 날

2-3 김건우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터닝메카드”이다. 터닝메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정리해둔다는 것을 깜박하여 거실바닥에 두었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만 밟아 버렸다.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인데 눈물이 주룩룩 나왔다. 이런 내 모습을 할머니가 보시고 이마트에 가서 “터닝메카드”를 새로 사 주셨다. 엄마가 사지 말라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사 주셨다. 할머니가 밟아 망가쳤을 때는 슬펐지만 할머니가 1개 더 사 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터닝메카드”가 1개 더 많아져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쿠크아트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날씨

2-4 이의진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쿠크아트에 케이크랑 피자를 만들러 갔다. 가서 가영이랑 하영이를 만났다. 이모들과 사촌들과 함께 했다. 그곳에서 동생들과 나는 피자 한판씩을 만들었다. 우리는 피자가 많아서 선생님께 한판을 드렸다. 쿠키도 드렸다. 그리고 피자를 다같이 먹었다.

피자를 만든 뒤에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설명을 먼저 듣고 장식을 했다. 나는 장식에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글귀를 썼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신 할머니가 좋아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할머니가 이것을 받으시고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넘버원

2-5 김시은



통일을 상상하며

2-1 이영재



오이도에서

2-3 박우현



통일을 위하여

2-2 협동화



달이 빛나는 겨울밤

2-4 조세인



올라프

2-5 김선혜



꿈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 세상 - 3학년 글&그림

3학년 1반 '배려'
남말 뜻 사전

강태민: 피구나 공놀이를 할 때 공을 양보해 주는 것
 '난 많이 했으니까 양보해 줘야지!'
 김경민: 공원에 쓰레기를 스스로 줍는 것
 '양치우면 드러우니까'
 김성환: 공연이 시작 된 후 큰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 음식물을 우걱우걱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는 것 '다른사람들이 공연 관람을 방해 하지 말아야지'
 김재중: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교실이 깨끗해지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김재운: 병원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것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조용하게 지내도록 작게 말해야지'
 박정우: 영화관에서 다른 사람과 큰소리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
 '영화 보는 사람들이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니 조용히 해야지!'
 송지후: 친구와 그네타고 놀 때 친구에게 양보해 주는 것
 신주윤: 동생에게 맛있는 것을 양보하는 것
 '나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으니 동생에게 양보해야지!'
 이동근: 다른 사람에게 피해 되지 않게 버스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
 홍현성: 할머니의 어깨를 안마해 드리는 것
 '할머니는 힘드시니까 내가 안마해 드려야지!'
 황천홍: 경비 아저씨가 청소할 때 쓰레기를 같이 줍는 것
 '경비아저씨가 힘드시니까 같이 주워야지'
 김현승: 할머니께서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뚫 올라갈 때 밀어드리는 것
 '안 도와 드리면 할머니께서 짐까지 못 가시니까'
 김채영: 다른 사람에게 방해 되지 않게 핸드폰의 이어폰을 끼고 보는 것
 '버스에서 자는 사람도 있으니 조용히 봐야지!'
 김희수: 학교 복도에서 뛰지 않는 것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용히 다녀야지!'

박시연: 복도에서 뛰지 않는 것
 '내가 뛰면 다른 친구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유진주: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리를 비켜주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리와 허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장서윤: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쓰레기를 주우면 깨끗해진 환경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전은서: 수업시간에 조용히 하는 것
 '시끄럽게 떠들면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없으니까 떠들지 말아야지'
 진채은: 교실에 있는 장난감을 나만 갖고 놀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최승빈: 오빠대신 빨래하는 것
 '오늘은 오빠가 힘드니까 내가 해야지'
 최예찬: 엄마 청소 사실 때 도와 드리는 것
 '엄마가 집안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니까 내가 도와 드려야지'
 최혜빈: 동생이 공부할 때 텔레비전 소리 줄여 주기
 홍지수: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되니까'
 주선아: 버스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먼저 앉게 해 드리는 것

입을 열 때마다 입에서 파리가
나온다면?

3-4 박소희

나는 저녁때 김이 싸여져 있는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잤다. 다음날 학교에서부터가 자꾸 입에서 잇몸이 가려운 것이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엄마와 함께 치과에 갔다. 그런데 치과 의사선생님이 내 입 안을 보고 해충 스프레이를 들고 와서 내 입안에 뿌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을 우물우물하고 뺐었는데 깜짝 놀랐다. 바로 내 입속에 파리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럴수가! 내, 내 입 속에 파리가, 파리가 들어있었다니...NO!!!! 이런 꿈일꺼야!" 그렇다. 어제 저녁에 먹은 밥 위에는 김이 아니라 파리였던 것이다.

물수제비

3-5 양유민

사람들이 온다
 강가로 온다
 그 많은 친구들
 하필 나를 택했네
 강가로 들어간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아이 차가워
 놀란 내마음
 얼음처럼 꽁꽁

화산섬

3-2 임현아

이 책을 읽어보니 나도 화산섬이랑 무인도 같은 곳을 가보고 싶다. 화산섬이 폭발했을 때 엄청 무서울 것 같다. 섬의 동물, 식물들도 관찰하고 싶다. 가고 싶은 화산섬을 떠올리며 시로 나타내보았다.

화산섬

섬 섬 화산섬
 바다거북이 육지로 올라와
 알을 낳는 화산섬.
 섬 섬 화산섬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와
 노래하는 화산섬.
 섬 섬 화산섬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화산섬.

별이 빛나는 밤에

3-1 박시연



옛 그림을 새롭게 -씨름-

3-2 장서연



스크래치화

3-4 이연주



동심원이 있는 사각형

3-5 정수현



**친구들과 종이 책을 만들어
바꿔 읽어요.**

4-1 진은아

요즘 어린이들이 책을 지루해합니다. 여가를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책을 만들어서 간단히 책의 중요한 내용을 써서 꾸민 후 서로 바꾸어 읽어 봅시다. 종이책을 만들 줄 모르는 아이들은 책을 꾸밀 수 있게 되고, 그 내용이 재미있다면 친구들이 책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으로 보내는 시간이 책을 읽는 시간이 될 것이고 종이 책을 만들어 봄으로써 독서 기록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종이 책을 만들어 친구들과 바꿔 읽읍시다.

우리 집

4-5 고은지

속제하다 힘들어도
나를 반겨주는
우리 집

TV도 보고
농기도 하고
나를 쉴 수 있게 해준
우리 집

쉬는 건 공짜

친구랑 놀다가 힘들 때
혁혁대며 찾아가는
친구 집

선풍기처럼 시원한 바람
사탕처럼 달콤한 손길
가득가득 차려져 있는
친구 집

무조건 공짜

왜 왕따를 시키면 안 되나요?
(출판사: 참돌어린이 지은이: 채화영)

4-2 김태희

다들 한번 씩은 왕따를 시키거나, 왕따를 당한 적,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도 왕따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나는 왕따를 당해 본 적은 없지만, 친구들의 놀림에도 기분이 나쁘는데,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까! 내가 그런 친구를 봤을 때는, 왠지 속상하고 불쌍해 보이니까지도 한다. 내가 만약 왕따를 당하는 친구였다면 마음이 진짜 많이 속상할 것 같다. 또, 왕따를 시킨 친구들이 정말 싫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왕따를 시킨 친구에게, 친구를 왕따 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책속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왕따의 사전적 의미가 '집단따돌림을 이르는 속된 말'인데, 옛날에는 왕따라는 말이 '말 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를 놀리는 말이었다. 왕따를 일본어로 '이지메'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괴롭히다', '들볶다'라는 뜻이고, '여러 사람이 약자인 한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일본은 이지메를 당한 친구가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자살을 하기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지메'에서 시작되어 점점 커지면서 왕따라는 문화가 된 것이다. 나는 왕따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문화라는 것 알았다. 왕따는 일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왕따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친구를 왕따를 시키면, 왕따를 당한 친구가 다시 다른 약한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그 현상이 계속 반복 되는 게 아닐까? 왕따는 매우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 그 친구를 위로 해주고, 왕따를 시키고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지금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있다면 일단 그 친구의 마음을 생각보자. 그리고 그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이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왕따를 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왕따는 친구들을 속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왕따를 시키는 것 보다 칭찬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우리들은 왕따보다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이다.



민속놀이를 하며

4-4 공혜인

오늘 예절교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민속놀이를 했다. 민속놀이 종류에는 내가 모르던 것들도 많았다.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자치기, 팽이치기, 줄다리기, 실뜨기, 솜바꼭질 등등 정말로 많은 민속놀이 등이 있는데 난 그중에서 공기놀이, 투호놀이, 땅따먹기 등이 정말 재미있었다.

공기놀이는 요즘에 아이들이 흔히 노는 놀이이고, 땅따먹기는 친한 여자아이들이랑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투호놀이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할 수 없는 놀이여서 더욱 재미있었던 것 같다. 윷놀이는 추석 때 가족끼리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나는 민속놀이가 물놀이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신기한 전통 민속놀이도 많았다. 쥐불놀이, 그림자놀이, 칠교놀이, 가마놀이, 그네뛰기, 골패치기, 차전놀이 등등 신기한 이름의 놀이들이 있다. 이 놀이들은 내가 모르던 놀이다. 방법도 잘 이해가 안가는 신기한 놀이이다. 이렇게 우리 전통 민속놀이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 옛날에는 전통 민속놀이를 사람들이 잘 알고, 많이 놀아서 좋았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 전통놀이 체험관이 있는데 나도 엄마께 부탁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요즘 사람들은 맨날 컴퓨터랑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추워도 밖에 나가서 전통놀이를 즐겼으면 좋겠다.~ 아! 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 갈 때 전통놀이 체험관을 한번 가면 좋겠다. 우리 전통 놀이는 정말 할수록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전통 놀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오늘 처음 더 많은 민속놀이를 알았다. 앞으로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민속놀이를 좀 더 자주 즐겼으면 한다. 그리고 문방구에서 투호를 싸게 살 수 있어서 아이들이 투호놀이를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나도 친구들과 놀게 없을 때 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민속놀이를 해야겠다.

전통예절 체험학습을 마치고

4-3 이한별

11월 11일 오늘은 전통예절교육을 하는 날이다. 오늘 주제는 전통놀이이다. 우리 반은 모두 운동장에 나와 모둠별로 스탠드에 앉았다. 제일 처음 투호를 하였고 다음은 제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순으로 놀이를 하였다. 다음 시간은 교실에 들어와 공기와 윷놀이를 하였다. 전통놀이를 진짜 오랜만에 하여서 정말 재미있었다. 오늘 한 전통놀이 중 제기차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5학년 예절교육 시간에는 4학년 때보다 더 재미있게 하고 싶다.



꿈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 세상 - 5학년 글&그림

<용돈은 항상 부족해>를 읽고

5-3 최원희

새봄이는 용돈을 충분히 많이 받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다 보다. 하긴 용돈이 많이 있으면 떡볶이, 슬러시 등등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긴 할 것 같다. 나도 엄마 아빠께 용돈을 받고 있지만 쓰지 않고 모으면 3-4 천원은 거뜬히 모을 수 있다. 용돈이 모자라면 아빠나 엄마께 달라고 말씀 드리면 더 주신다. 난 새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용돈이 많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봄이도 이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주위 애들이 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니냐며 말하는 것도 나랑 비슷하다. 가끔씩 용돈이 금방 바닥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께서 5천원을 용돈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나는 통장도 있어서 용돈을 모아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넣으면 기분이 정말 좋다. 통장에 차곡차곡 모이는 내 용돈들을 보면 기분이 뿌듯하고 너무 즐겁다. 새봄이처럼 용돈을 벌기 위해 훔 알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새봄이도 언니 새나라는 맨날 부모님께 용돈을 올려 달라고 조르지만 하는데 그런 모습은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엔 새나라는 언니니깐 언니답게 새봄이에게 좀 좋은 모범을 보여 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용돈을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 그 모인 돈으로 꼭 사고 싶은 걸 살 거다.

가을

5-2 최광진

바람이 세차게 불고
구름이 저 멀리 여행을 떠난 후
생긴 드높고 넓은 하늘

단풍잎과 은행잎은
노랗게 빨갯게 물드는 가을

이 계절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봄이 와도
나는 언제나 찾아오는
이 계절이 좋지요.

낙관

5-1 협동작품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

5-6 이하연

5학년 독서 골든벨 책으로 이 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읽게 되었다.

책의 주인공인 제임스는 코볼소가 엄마와 아빠를 잡아먹고 고아가 되었다. 고모 둘 밖에 남지 않은 제임스는 고모집에서 살기 위해 가방을 챙겨 갔다. 그러나 고모는 제임스를 반겨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모가 제임스의 식비, 교육비를 모두 강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모들은 그 돈이 가까워서 제임스에게 장작 패는 일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다 제임스는 우연히 초록색 양복을 입은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 할아버지는 제임스에게 씨앗을 하나 주었는데 절대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제임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실수로 씨앗을 땅에 떨어뜨렸고 주울 시간도 없이 씨앗은 땅에 흡수되어 버렸다. 땅에 있던 지네, 매뚜기, 지렁이, 거미, 누에, 반딧불이, 무당벌레는 그 씨앗을 먹고 엄청나게 커져 큰 복숭아 안에 살게 되었다. 큰 복숭아도 그 씨앗을 먹고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이다. 제임스도 우연히 그들이 사는 복숭아 굴에 들어가게 되어 벌레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 여행 중 미국 한 도시에 있는 엠파이어 빌딩에 꽂혀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책을 읽고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복숭아! 복숭아도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썼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다. 옛날부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취미였는데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처럼 판타지 모험 이야기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책에 빠져들 정도로 재미있었고 언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정도로 재미있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꼭 읽었으면 한다.

등산

5-2 김민혁

등산을 해요.
시원하고 좋은 공기

빨간색 단풍잎
노란색 은행잎

등산을 해요.
가을에는 등산이 최고예요.

가을타는 남자

5-2 방준겸



<릴리의 눈물이야기>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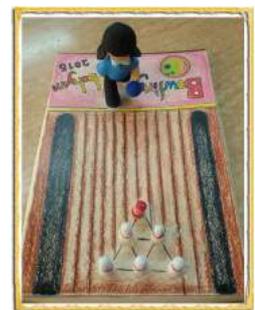
5-5 김은미

더위가 한창인 8월의 어느 날, 릴리는 너무 비싸서 휴가도 가지 못한 채 일터인 분실물 보관소로 향한다. 릴리의 분실물 보관소에는 잃어버린 열쇠나 편지, 새장이나 스카프 같은 온갖 잡동사니부터 사람들이 흘린 슬픔의 눈물까지 참 많은 것들이 있다. 잃어버린 물건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지만 눈물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잊고 싶어 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셀 수 없이 많은 병들에 각각 담긴 채, 분실물 보관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눈물 때문에 릴리는 속이 상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릴리는 조수와 머리를 맞대고 눈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한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낸다. 바로 눈물을 가둠으로 말라 가는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많은 눈물 덕분에 하룻밤 사이 바닷물이 불어났고 사람들은 수영을 하며 기뻐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과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고 릴리도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실물 보관소가 진짜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도 힘들거나 슬픈같은 것이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보관해버리면 힘이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분실물 보관소는 없을 것 같다. 또한 인생에 좋은 일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지를 난 모르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쁜 일도 조금은 있어야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사람이 살면서 한번쯤은 누구나 고통이나 상처, 슬픔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기고 일어나면 다시 희망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말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주인공만 있고 악역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분명히 시청률이 적게 나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망이나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공부, 학원, 잔소리, 친구 관계 등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아서 그 속에 들어있는 '긍정'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릴리의 눈물이 결국 기쁨이 될 수 있었듯이 나도 내가 생각하는 불편한 것들 안에서 긍정을 찾아내어 희망과 기쁨으로 만들어야겠다.

볼링대회

5-4 김보현



낙관

5-1 협동작품



가을타는 남자

5-2 방준겸



학급신문

5-1 임태호



학급신문

5-5 협동작품



성냥팔이소녀

(뒷이야기 상상해서 쓰기)

6-4 노이래

성냥팔이소녀가 죽은 후 성냥팔이소녀는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가니까 하느님이 성냥팔이소녀를 불쌍하게 여겨 부자인 집에서 환생하도록 도와주었다.

성냥팔이소녀는 부자인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성냥팔이 소녀의집은 갑자기 가난해졌다. 그래서 성냥팔이소녀의 어머니가 돈을 벌러 집을 나가신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후 소식이 끊긴 채 몇 년을 구걸해서 버티다 예전 어머니가 돈 벌러 가신 지역에 도착했다.

성냥팔이소녀는 갑자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 집을 찾아갔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하룻방 묵어가도 된다고 했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를 보니 예전 어머니랑 닮아서 슬픈 생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성냥팔이소녀는 슬픈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래도 내가 네 어머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신다. 어머니는 식당을 하시다가 성공을 해서 식당을 늘리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성냥팔이 소녀는 친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자

6-6 조소희

황사가 심해지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밖에 나갔다가 도리어 각종 호흡기 질병에 걸려 돌아오는 사람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만 잘 착용하여도 코와 입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코와 입 속으로 들어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사가 심한 날에는 귀찮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 마스크만 착용하면 코와 입 속으로 들어가는 먼지의 일부분만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손과 발을 씻으면 몸에 붙어있는 먼지들을 더 깨끗하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별 체험학습의 마지막 밤

6-2 김민교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바닥에 누워 생각을 한다.
먼저, 가족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뭘 하고 있을지, 잘 있는지.
그 다음 우리 반이 떠오른다. 매일 떠들썩하던 반이 오늘날만큼은 조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에 있을 친구들이 생각한다. 교관쌤한테 걸리지는 않았는지.

스마트 폰 사용의 위험성

6-3 김규태

스마트 폰이 건강을 해치고 대인관계도 단절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기도 많고 사용량도 많은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질병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은 스마트 폰을 한번 사용할 때 장시간동안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장시간의 사용은 시력을 저하시키고 목 디스크 등과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또한 전자파를 통해 우리들의 뇌에 영향을 주어 뇌를 나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폰을 잘 때 머리 밑에 두고 자는 것만으로도 뇌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둘째, 대인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 간에 소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식당에 가면 많은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서로 스마트폰만 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도 서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편리함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장시간 동안의 사용을 줄여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자

6-6 유민희

요즘 어린이들은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살이 찌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패스트푸드 먹는 양을 지금부터라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나누는 시용꿈나무
시용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을 다녀와서**

6-1 임동휘

4박 5일 (2015. 08. 14 ~ 2015. 08. 18) 일정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글로벌 세상을 경험해 본다.

태국 돈무앙공항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사브타일랜드 비누공장에 도착하여 공장의 시설물과 비누를 만드는 제조과정을 지켜보고, 망고 비누를 견학 선물로 받았다. 자랑스런 한국인 CEO 김 환 사장님의 '꿈'과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생 잊지 못 할 본인의 실제 삶과 인생을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신나는 견학을 마치고, 태국 정부가 운영하는 BANN FURNGRAN 고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직접 보고, 찾아가서 생필품을 전달해 봄으로써 고아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아원에도 한번 방문하여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놀아주며 봉사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에는 대부분이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공간을 견학하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온 많은 필요한 후원물품들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한인토요학교에 도착하여 재학생인 재태한국친구들의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온 책들과 함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8.15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영상과 함께 의미있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광복절 노래와 (광! 복! 절!) 삼행시를 지으면서,
옆 친구와 처음엔 서먹했지만 금방 친해 질 수 있었습니다.

-시흥꿈나무 태극 윷덩마이 현지학교 환영식 문화교류 공연-
교장선생님 인사말씀과 학교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태극 4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춤과 무예타이 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태극학교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감상하고, 그 간 사전교육에서 열심히 준비한 꿈나무의 춤과 태권도를 선보였습니다.

한인학교에 가서 태극기를 태국에 있는 한국 친구들과 시흥꿈나무 친구들이 한명 한명이
손바닥을 직접 찍어가며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태극기보다 훨씬 의미 있는 태극기를 만든 것 같아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한국학생들은 태극 국기를 들고 태극학생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나라에 대해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 준 것 같습니다.

딱 하루 만나서 같이 활동하였지만 하루 종일 같이 손잡고 태극문화를 체험해 봄으로써
친해지지 못할 거 같다는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 친구가 되었네요.
태극 친구들도 우리가 어려웠을 텐데, 항상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많이 다를 것 같죠??
태국도 우리나라의 '동대문을 열어라~~' 와 같은 놀이가 있더군요.
전통놀이를 같이 해봄으로써 태국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태극 친구들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가 받은 환대를 돌려주는 기회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꿈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 세상 - 4학년 그림 & 6학년 그림

딸기사랑 곰돌이

4-3 정예원



별이 빛나는 밤에

4-2 권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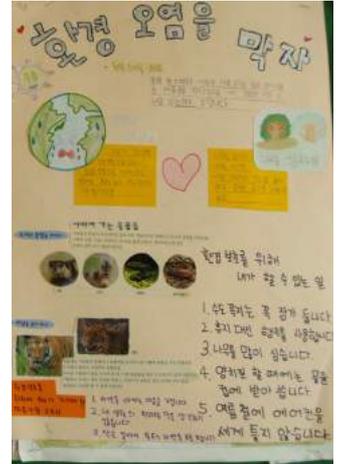
열기구

4-4 이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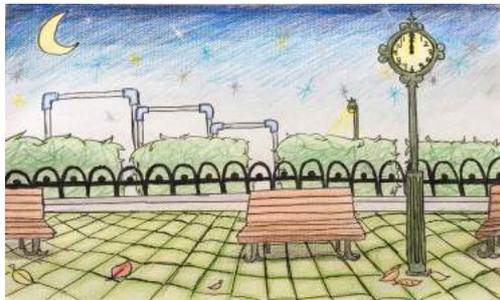
환경신문

4-5 협동작품



가을밤

6-1 이가람



민화

6-4 홍소담



오체불만족

6-5 정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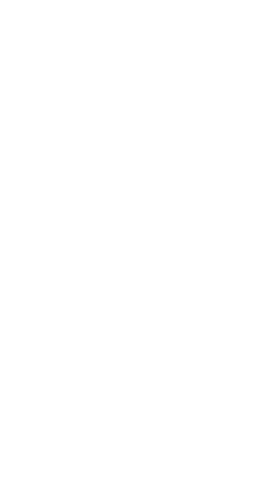
Lady (먹그림)

6-6 우지수



아기사슴 퍼즐 페인팅

6-2 이혜원



붓글씨

6-3 이현수

